

Q 지난달에 T·V를 보고 일부지방에서 돼지콜레라와 전염성위장염(TGE)이 만연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겨울에도 돼지 콜레라가 발생하는지요?
또 TGE의 증상과 예방 치료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고매리 김 창 선)

A 돼지 콜레라나 TGE의 병원체는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는 추울 때 저항성이 더욱 강하여져 오랫동안 활성을 갖게 됩니다.

돼지 콜레라는 연중 발생되며 겨울철에도 물론 발생하게 됩니다. 더우기 겨울철에는 날씨가 너무 추워서 돈사내외의 소독을 소홀히 하기 쉽기 때문에 병원체의 침입이 더욱 우려되지요.

특히 TGE는 거의 겨울철, 즉 12-3월 사이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TGE의 발생 및 감염경로, 주요증상 및 예방대책에 대한 개요를 기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기온이 급강하 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돼지 전염성 위장염의 발생이 크게 우려됩니다. 특히, 중소규모 이상의 양돈장에서 많이 발생하며 그 피해는 매우 큼니다. 따라서, 앞으로 겨울철동안 각 양돈농가에서는 돼지 전염성 위장염에 대한 철저한 예방대책의 수립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가. 발생 및 감염경로

돼지 전염성 위장염은 기온이 낮은 계절에서 많이 발생하며 우리나라에서는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주로 추운 겨울에 많이 발생하고 특히 1~2월에 발생하는 예가 많습니니다. 즉, TGE바이러스는 높은 온도에서는 쉽게 사멸하나 동결상태에서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으므로

겨울철에는 이미 감염된 돼지의 배설물이나 오염된 사료 등을 통하여 경구 또는 호흡기로 감염·전파되며 각종 소독제를 사용하여도 낮은 온도에서는 소독약의 효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더욱 감염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나. 주요 증상

TGE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설사를 할때까지의 잠복기는 18~48시간이나 잠복기가 지나면 구토와 심한 설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구토는 젖을 먹은 직후에 심하며, 설사를 하는 동안에 지속되는데 설사가 2-3일 지속되면 체중의 급속한 감소와 심한 탈수상태로 폐사하게 됩니다.

폐사율은 생후 5일 이내의 포유자돈은 1백% 폐사하며 일령이 증가할 수록 발병증상이 가볍고 폐사율도 감소합니다. 그러나 한번 발병하면 회복이 되더라도 그후 발육이 불량하여 위축돈이 되기 쉽습니다. 비육돈의 경우 2-3일간의 잠복기를 거쳐 설사를 하기 시작하며 3~4일간 지속되다가 2차적인 세균감염이 없는 한 거의 회복되나 한 돈사내의 돼지무리는 1-2주간 지속되는데 설사를 하는동안 탈수증 및 체중감소가 뚜렷해집니다. 임신 모돈이 분만 직전에 감염되면 물론 설사를 심하게 하고 식욕절멸로 분만후 젖이 적게 나오거나 또는 아예 전혀 나오지않고 자돈은 모돈의 체내에서 이미 감염

되어 분만후 2 - 3일 이내에 죽게됩니다.

다. 관리 및 예방

1) 외인 및 외부차량의 출입을 금하여야 하며 새로 돼지를 구입할때에는 반드시 격리시켜 검역을 철저히 하고 보균돈이나 잠복기에 있는 돼지의 입식을 막아야 합니다.

또한 번식돈을 철저히 위생관리하에 격리시켜 신생자돈의 감염을 피해야 하며 분만 계획을 중지시켜 감염주기를 차단시키고 발병돈과의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2) 모돈을 감염된 돼지와 접촉시켜 모돈을 감염시킴으로써 모돈이 면역을 얻으면 그 돼지가 낳은 새끼는 젖을 통하여 모체의 항체를 받게 되므로 감염을 방어하게 됩니다.

이때에 다른 돈군에 TGE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3) 예방접종 : 돼지 전염성 위장염의 예방접종은 주로 임신모돈을 면역시켜 젖을 통하여 항

포유자돈의 최적온도

일	령	온	도
출	생	일	35°C
2	일	령	33°C
3	일	령	31°C
4	일	령	29°C
5	일	령	27°C
6	일	령	25°C
7	일	령	23°C
8	일	령	21°C

체를 얻는 수동면역에 의한 유집면역법으로 임신돈에 TGE바이러스를 고의적으로 먹이는 방법, 임신돈에 예방접종을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임신돈에 대한 예방접종은 TGE백신 2ml를 근육 또는 피하에 분만 5주전에 1차 접종하고 다시 분만 2주전에 2차 접종하되 반드시 2회 접종을 하여야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만일에 안이한 생각으로 1회만 접종을 하면 전혀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사는 건강한 임신돈에만 접종을 하고 체온이 높거나 영양상태가 불량하거나 기타 질병이 있을때에는 백신접종을 피해야 합니다.

사용하고 남은 백신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버려야 합니다.

라. 치료

돼지 전염성 위장염의 원인체가 바이러스이므로 이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약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 돼지에 대해서는 대증요법 및 영양분 전해질 등 보강으로 증상을 완화시키고 설파제나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하여 2차 세균 감염을 막아 주어야 합니다. 특히 포유돈은 돈사내 온도를 높여주므로써 본병의 치료율을 높이고 발생도 줄일수 있습니다. 포유돈의 최적온도는 왼쪽표와 같으므로 발생돈사내는 계속 20°C~30°C으로 유지함이 가장 바람직 합니다.

(응답자 : 농촌진흥청 가축위생연구소 병독과장

김 용 희)

부존자원 활용하여 국제수지 개선하자